

[목회자 모임] 생명의 농장

2019. 11. 15. 이현래 목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완전한 것은 생명관계이다. 서구 사상은 무엇이든지 객관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 사상이다. 과학을 하려면 모든 것이 객관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다 객관화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 들어온 가장 큰 적이다.

세상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다른 것도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더 중요하다. 세상의 원리는 객관화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미 들어왔다. 교리화 되었다는 말은 객관화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보기 쉽고 만지기 쉽다.

왜 모든 것을 객관화 하려고 하는가? 객관화 해놓으면 누구나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 객관화 되어 있으면 내가 만지다가 그냥 둘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니다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생명화 되어 있으면 내 몸속에 있는 것이니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도 없고,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 없을 때도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전부 객관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화시켜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번에 사랑방에 어떤 청년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을 만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무신론이라고 하거나 유신론이라고 하거나나 그 이론이 우리 생명과는 무관하다.

나도 옛날부터 유신론이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신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막상 내 문제가 부딪히니까 이것이 소용이 없었다. 나는 내일일도 모르는구나.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러니까 유신론이라고 해보았자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었구나. 내 위에 누

가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 전까지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 다니는 나로서는 가장 큰 문제였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0십대가 되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가면 짹짹하고 가면 뭔가 허망한 것이다. 우리 예배당이 신사절터라 높은 곳에 있었다.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몇 년간을 살았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모르겠는 것이다. 그리고 책도 보고 했는데 모르겠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어떤 날, 나에게 그런 날이 왔다. 나는 내일 일도 모르는구나.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 앞서, 내 위에 내가 아닌 우리 부모 말고 다른 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본 일이 없지만 그것이 시인되니까 그동안 복잡했던 머리가, 구천을 헤매고 돌아다닌 머리가, 전부 정리가 되었다.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 앞서 내 위에 누가 있구나. 알고 보면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나를 왜 지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 전에 나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어놓았느냐는 질문 자체를 해 본적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질문을 하겠는가?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를 왜 지어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지어 놓았습니까? 나는 지금 살기 어려운데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젊은 날에 내가 그런 때가 있었다. 정말 앞도 뒤도 다 막히고 하늘만 터져 있는 그런 때였는데,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었으면 나는 숨이 막혀서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때 나를 불렀다. 그 부름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앞도 뒤도 모르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던 것이다. 나는 뭘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 거기는 해결책이 없었으니까 떠난 것이 너무 시원했

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버리고 왔다고 하면 속으로 우습다. 버릴 것이 많아서 저렇구나. 나처럼 버릴 것이 없으면 시원한데 버릴 것이 많아서 저렇구나 했다.

아브라함도 아마 버릴 것이 없었을 것 같다. “너는 너의 고향(본토)과 친척과 아버지(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지시 할) 땅으로 가라.”(창12:1)고 했을 때 어떻게 고민하다가 따라 나왔는지, 선뜻 따라 나왔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선뜻 따라 나왔다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만일 고민하다가 따라 나왔으면 좀 버릴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다. 버릴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뜻 따라 나오지 못한다.

우리나라에도 개화기에 잘사는 집, 양반집은 개화에 못하거나 아주 늦게 참여했다. 천민들이 먼저 참여하고 다음, 다음, 다음에 귀족들도 참여했다. 우리나라 초창기 유명한 기독교인들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많이 있으면 못 간다.

나는 참 다행으로 아무 것도 없어서 쉽게 빠져나왔다. 나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한 번도 내가 뭘 버리고 나왔다는 생각이 없었다. 버릴 것이 없이 나왔으니까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나왔다. <주의 손에 이끌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면 그 이야기이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젊은 날에 뭘 좀 버리고 왔다는 형제들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 알량한 것을 버리고 와서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버릴 것이 있어서 저렇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행복이다. 버릴 것이 많아서 야곱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것을 다 버리느냐고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지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버릴 것이 많아서 그렇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맨날 버려야 될 것이 많다.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버리려고 하면 참 어렵다. 그런데 빛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아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쉬워진다. 그러기 전에 버리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그분과 우리 관계는 생명관계이다. 사무적인 관계도 아니고, 상업적인 관계도 아

니고, 법률적인 관계도 아니다. 완전히 생명의 관계이다.

이번에 어떤 형제가 자기가 조그마한 회사를 하는데, 주식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랑방에 썼다. 하고자 했던 말은 주식회사를 자랑하려고 쓴 말이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자기 혼자 하다가 직원들과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제목을 ‘십뿔뿔’ 주식회사라고 부쳤다.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무엇을 제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교회도 주식회사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얼른 생각하면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것은 구락부(클럽)이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속한다면 모여서 만들면 된다. 몇 사람 모여서 교회 하나 만들자고 하면 된다. 이것은 서구사상이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든다. 서구사상은 무엇이든지 객관화다. 하나님도 객관화다. 객관화를 하니까 뭐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아무 감동이 없다.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 말을 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유명한 말이다. 우리는 ‘말씀’하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별로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다.

로고스는 인격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말이다. 객관화된 말이다. 객관화된 지식, 지혜, 궁극적인 결정, 이런 것에 속한 말이다. 이 말을 생명으로 둔갑시켜 놓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라고 했다. 이 객관화되어 생명이 없는 로고스가 생명 속으로 싹 둔갑을 한 것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은 것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을 모르는데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싶고, 그러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면 나 혼자 갈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으니 길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없다는 말도 아니다.

그래도 빌립이 지혜롭게 물어보았다. 길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14:8)라고 한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고 했다. 이것이 도대체 아버지가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길이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길이 객관적으로 있어야 사람들은 그 길을 갈 것인데, 객관적으로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광야에 길이 없다. 길이 없는 곳이니까 어디가 길이나고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 길 없는 길을 돌아다니느라 40년을 돌아다닌 것이다. 길이 무엇인가? 오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길이다. 뜨면 걸어가고, 서면 앉는 것이다. 길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길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으니까 언제 구름기둥이 뜰 것인지, 언제 가라앉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말씀은 좋은데,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항상 무엇을 하라는 소리를 듣다보니 그렇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 안에 길이 있는데, 대부분이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주 쉽고 나는 길만 안내해주면 된다. 가고 못 가고는 그 사람 책임이다. 나는 책임도 없다. 객관화라는 것이 참 편리하고 좋다. 모든 것이 편리하다. 객관화되면 하나님도 주머니 속에 내 마음대로 넣고 다닐 수 있다.

서구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했다. 모든 것이 객관화되니까 사람도 객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게놈 지도가 나오는 이유가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구조를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질병치료도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으로 알파고 같은 것을 만들었다. 오만 지혜를 다 입력시켜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지식의 정보가 수없는 많기 때문이다. 바둑이 9단이니 10단이니 했던 사람들이 알파고와 하면 진다. 왜냐하면 알파고 속에는 10단이 몇 개가 들어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도입되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전부 그런 식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관계는 그것이 안 된다. 그분과 우리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도 그냥 형상과 모양이 아니다. 그냥 옷처럼 형상과 모양이라면 늘 새로 만들어 입을 수 있다. 객관화 되어 있으니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 피부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사실은 날마다 입고 다니는 내 옷은 내 가족이다. 생각해보라. 옷은 가족(피부) 위에 입는 것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가족을 뒤집어쓰고 사는 것이다.

가족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피부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고생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피부를 가장 완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동산병원의 어떤 의사가 그것을 개발했다. 화상환자들은 병원에서 가장 골치 아픈 환자들이라고 한다. 진물 나고 아프고 냄새나고 열난다.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약을 바르는 것마다 독이 되어 어렵다. 어떤 의사가 아기 낳을 때 나오는 태반을 어떻게 처리했다. 얇게 피부처럼 만들어서 냉동시켰다가 화상환자에게 완전하게 덮어주면 아무 약을 쓰지 않아도 흉터도 생기지 않고 그 안에서 화상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

생명으로 덮어 놓으니 그 안에서 생명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이다. 적당한 수분에 적당한 영양을 주어서 치료가 된다. 우리 교회에도 그것으로 치료한 사람이 있다. 팔을 화상을 입어 치료를 했는데, 대부분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는데, 움직이는 부위는 완전히 덮여지지 않아서 바람이 들어갔는지 흉터가 생겼다. 생명은 생명으로 치료해야 되지, 생명은 다른 것으로 치료할 수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요1:14) 요한은 묘하게 생명 없는 로고스를 생명 속으로 둔갑시켰다고 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성육신, 육체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객관화 되어 있던 어떤 것을 주관화시켰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객관적이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생명 속에서 나가게 되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가 된다. 그 레마는 또 사람 속에 생명이 된다.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 생명이 된다. 교리는 생명이 안 되지만 레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고 했다.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사도요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사도요한이

다. 이 사람을 생명의 사도라고 한다. 요한1,2,3서를 읽으면 완전히 생명에 관계된 말씀이다. 생명을 모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말세의 비밀을 찾으려고 요한계시록을 본다. 말세의 비밀을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결혼을 이야기한 것이다. 어린양의 신부, 생명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다. 어린양의 혼인잔치다.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죽은 것은 얼마나 비참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다는 그 뜻이다. 이 우주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된다.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책인가! 그것을 말세의 비밀을 찾는다고 뒤적이고 앉았으니 맨날 찾아봐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말세의 비밀을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린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너무 즐거운 잔치이다. 거지가 공주와 결혼했다면 엄청난 것이 아닌가. 양반집 딸이 임금과 결혼해도 엄청난데, 거지가 어디서 와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아서 왕비가 되었다면 이런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겠는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감동스러운 책이다. 그런데 객관화시켜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다. 맨날 우장창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죽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생명관계이다. 철저하게 생명관계이다.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또 객관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맞니 안 맞니 해서 부자간에도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 부자간인데도 안 된다.

누군가가 그것을 개입시켜 놓은 것이다. 부자간 사이에도 부자간의 혈연이라고 할지라도 수틀리면 갈라지도록 만들어놓았다.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인간만 그렇다. 인간만 부자간에도 옳지 않으면 틀어진다.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저런 아들이 내 아들이라면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보다 10배나 더하다.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나쁘게 생각한다. 그런

데 사람이 참 이상하다. 아버지가 똑똑하고 돈도 많은 집은 자식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겠는가?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을 것인데, 거기서 효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 것도 못해준 부모, 가난해서 고생한 부모, 이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 이상한 일이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잘해줄까, 이 생각만 한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한다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런데서 효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 없어서 해줄 것도 없는 집에서 효자가 나온다.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식이 볼 때, 부모가 불쌍해 보여야 하지, 부모가 똑똑해 보이면 효자가 안 된다.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고 보면 완전히 다른 관계이다. 성경을 볼 때는 회복된 사람들이 쓴 것이니까 그 속에서 보아야 성경에 제대로 보이지 객관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백날 봐도 소용이 없다. 교리밖에는 나올 것이 없고, 교훈이 좀 나오는 정도이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이 Bible이니까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논어, 맹자 하듯이 사서삼경 하듯이 그런 책으로 생각한다. 교훈만 가지고도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논어나 맹자나 사서삼경을 읽은 사람들은 성경보다 훨씬 좋은 말이 많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몇 마디 안 된다. 그런데 논어는 공자님 말씀이 짝 차있고, 맹자는 맹자님 말씀이 짝 차 있다. 따로 따로 다 되어 있다.

윤리적으로는 공자님 말씀, 정치철학으로는 맹자님 말씀.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은 중용이다. 중용이 그냥 이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적당하다는 뜻이다. 적당하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분의 일 일수도 있고, 삼분의 일 일수도 있는데, 적당하다는 말이 숫자적으로 표시하려고 하면 어렵다.

중용을 읽고 난 다음에 대학을 읽으니까 대학은 왕도이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은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써 놓은 것이다. 중용을 읽고 대학을 읽어야 한다. 임금으로서는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니까 솔로몬과 같은 재판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용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중용을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좌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적절한 자리에 있

어야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다. 어디로 가 있어도 나는 좌 아니면 우다. 그러면 치우치게 된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아무한테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좌도 아니고 右도 아니어야 되고, 그렇다고 중간도 아니어야 된다. 중용에 있어야 한다. 중용이 되려면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중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 마음이 안 된다.

요즘은 아버지도 자식들 중에 어떤 아들을 높이 사고, 어떤 아들은 무시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자식은 떠받들고, 서울대학교 못 간 자식은 개똥취급을 한다고 한다. 부도(父道)가 없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도(道) 자체도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목회자는 左가 되어도 안 되고, 右가 되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간이 되어도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의 목장에서 생명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에덴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흙으로 지은 사람을 동산에 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뜻이다. 농장의 말로 하면, 농업적으로 하면 경작한다는 뜻이다.

동산이니깐 당연히 꽃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을 다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잘 열리게 하고, 배나무에서 배가 잘 열리게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뜻이 된다. 나무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나무를 키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벼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벼를 키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경작하는 것이다.

거기서 동산을 경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한 동산이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살게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자기 안에서 재배한다는 뜻이다. 자기 안에서 증가를 시킨다. 비유로 하면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것이다. 흙은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다른 아무 능력이 없다. 유일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씨가 들

어오면 그것을 키워내는 능력이 있다. 여자가 씨를 받으면 애기를 키워내듯이 사람은 무엇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키워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보고도 크게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엄청나게 한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시끄럽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은 흙과 똑같다. 아무리 싫은 것이라도 자기 속에 받아들여놓으면 그것을 부풀려 크게 만든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다. 어쩔 수 없다. 씨를 무엇을 받느냐가 문제이다. 엉겅퀴를 받고 싶어 받겠는가? 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인데, 받아놓으면 엉겅퀴를 무진장 키우는 것이다. 엉겅퀴 받을 만들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과 씨를 받으면 사과를 키워낸다.

옛날에는 사과 한 나무에서 수십 상자를 땀다. 사과나무 하나로 대학을 한 명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 요즘은 사과가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국광사과 있을 때는 그랬다. 땅이라는 것이 묘하다.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 첫해는 2~3개 열리고, 그 다음해에 가면 2~30개가 열린다. 그 다음 해에 가면 100개 200개가 열린다. 그 다음에 가면 1000개씩 열린다.

그것이 흙의 특성이다. 인간의 특성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인간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극대화시키게 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극대화 시킨다. 나쁜 것을 받으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데, 뒤로 가면 엄청나게 커져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뒤집는다.

공산당 선언이 나온 이후로 전 세계를 휘몰아쳤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그전까지는 부는 부자들의 것이고 왕족들의 것이었다. 생산은 노동자가 하는데, 가져가기는 귀족과 왕족들이 다 가져갔다. 이런 사회에 한마디를 던진 것이다. 부는 생산자의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의 삼분의 일을 점령했다.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다.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려서 아이에게 한 마디 해놓은 것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커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좋은 것이 커져서 나오면 좋은데, 나쁜 것이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피해

를 보게 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머리도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사춘기가 돌아오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이 갈등이 처리가 안 되어서 결국 정신병이 되었다. 원인을 들어보니 옛날에 대가족이었다.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는 속에서 사촌, 육촌들도 한꺼번에 살기도 했다. 그런 대가족 속에서 열일곱 살에 아들을 낳았다. 옛날에는 열일곱 살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열일곱 살에 아들을 낳으니 자기 아들이라고 안고 못 다닌다. 안고 다니면 동네 어른들이 버릇없는 놈이라고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안아주지 못했다. 또 너무 일찍 낳아놓으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한번은 어렸을 때, 밭에 가는 아버지를 졸졸 따라가면서 아빠, 아빠 했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이 새끼, 너 아빠라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한 모양이다. 아빠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 박혀버렸다.

그러면 누가 내 아버지인가?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는 조카니까 사랑했을 것이다. 큰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진짜 아버지는 큰아버지구나. 그러면 어떻게 큰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을까? 사춘기가 돌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와 큰아버지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를 낳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사춘기에 오니까 이것이 자기 정신세계를 지배해 버리니까 평생 환자 노릇을 한다. 지금도 그렇게 산다.

그래서 항상 술을 먹는다. 아주 곤드레까지 먹지는 않는데 알콜 중독자가 되어 늘 술을 먹고 있다. 장티푸스가 걸려서 간신히 나았는데, 나는 술을 못 먹게 하려고 장티푸스는 술 먹는 사람은 큰일 난다고 했다. 장티푸스는 장이 뚫어지는 것인데, 술 먹으면 장이 견디겠느냐고 했다. 나는 술을 먹지 말라고 그 말을 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놓았는데, 문제가 터졌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큰 실수를 했다.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

말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 내가 모르고 전혀 모르고 그랬다. 한 사람은 테니스 선수인데 중고등학교를 테니스만 치고 상업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형이 모은 행에 후생과장이어서 동생을 그 테니스 부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허리를 다쳐서 테니스를 못하게 되어 형의 뺨으로 정식 직원으로 넣어주었다. 그러면 영전한 것이다.

그때는 한자로 이름을 수기로 할 때인데, 창구에 얹혀놓으니 이름을 알 수 없다.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먹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통장을 내밀어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상업학교니까 당연히 부기를 배웠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기장을 못한다.

한번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한자 천자만 알면 사람이름 자는 다 알 수 있다. 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빨리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얼마간 있다가 와서 부기를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길래 부기 학원을 두 달만 다니면 된다고 하니까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돌고 말았다.

내가 지금도 평생 후회가 된다. 내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지금 나이가 육십이 넘었다. 아이들 키울 때 참 어려운 것이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평생을 간다.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객관화 되면 편하고 좋다. 책임도 없고 길만 가르쳐 주면 된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된다. 믿든지 못 믿든지 그것은 당신 책임이다. 믿음에 맡겨버리면 모든 것이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 믿음이다. 잘해도 믿음, 못해도 믿음이니까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는가? 믿음에 다 맡겨버렸으니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것은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려면 뭐하려고 사역자가 있는가?

계시는 대부분 신비롭고 사람이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석을 해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 해석에 다 한계가 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요1:17)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백성에게 준 법이 율법이다. **“은혜와 진리(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1:17)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마찬가지로인데,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이것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 로고스가 육체가 되다니? 이것은 쇠덩어리가 근육이 되었다는 말과 비슷하다. 나무 동아리가 근육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교리로 다 세워놓아도 못 지킬 것이 너무 많다. 만든 사람도 못 지키고, 들은 사람도 못 지킨다. 그래서 나는 교리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그것이다. 나는 내 일이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세계에 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좀 혼란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에 왔다고 처음부터 완전해지는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똥도 싸고 오줌도 싼다. 그런데 오줌 싸고 똥 싸는 것을 통제해 버리면 그 애기가 살겠는가? 똥 잘 싸는 놈이 건강한 놈이다. 오줌 잘 싸는 놈이 건강한 놈이다. 오줌 제대로 못 싸고, 똥 제대로 못 누면 사람이 죽는다.

내가 오줌을 못 뉘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호스를 꼽아서 빼내도 소변이 안 나온다. 나는 일초도 못 견디니까 응급으로 불러 놓으면 자기들은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온다. 호스를 꼽아서 쪽 나오면 시원해진다. 그렇다고 한번 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시간되면 또 찬다.

생명이 저절로 소변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호스를 꼽아 놓았더니 거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변 줄을 빼고 나니까 오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오줌을 눌 때마다 의사가 와서 호스를 넣어야 오줌을 눌 수 있었다. 그냥 오줌을 잘 눌 수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이다. 또 똥이 안 나오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손가락을 넣어서 빼 내야 된다.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똥도 괴롭고 오줌도 괴롭다.

똥 잘 누고 오줌도 잘 누는 것이 아주 건강한 놈이다. 아이들이 오줌 싸고 똥 싼다고 더럽다고 하면 애기 못 키운다. 여자 사표를 내야 한다. 엄마 사표를 내야 한다. 코 흘리는 놈이 건강한 놈이다. 애기 낳기 전 처녀 때는 어찌고저찌고 하다가 애기를 낳고 나면 옷에 코가 묻어서 애기 업고 다닌다. 그것이 더러우면 애기 낳지 말아야 된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욕 얻어먹을 각오해야 한다. 너희 왜 그 모양이냐? 생명, 생명 하는데 너희 교회 가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런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 안 들을 수 없다.

애기 키우면서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느냐는 소리를 들었다면 잘못된 것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이다. 애기 키우는 엄마가 항상 빼입고 있으려고 하면 애기가 귀찮아진다. 엄마니까 엄마에게 와서 비비고 마음대로 문지르고 해야 하는데, 엄마가 아기가 오면 밀어내고 저기 가 있으라고 하면 되겠는가?

서울의 어떤 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늘 그 집에 와서 논다. 이웃집 아이들이 그 집에 와서 노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다른 애들 집에는 못 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개방된 집에만 아이들이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정리해 놓았

는데 아이들이 어지르면 또 청소하고 또 정리해야 된다. 아이들이 아예 친구를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크겠는가? 인간이 제대로 크지 못한다. 깨끗하게 클지는 모르지만 인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친구도 자기 집에 못 데리고 온다. 자기 집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다.

요즘 애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들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하나 낳으면 그만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 옛날에는 많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 명씩도 낳았다.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낳기도 어렵다. 점점 인구가 줄어져 간다. 흑인들은 늘어나고, 백인들은 줄어드니까 미국에서도 고민이다. 그래서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생명은 생명하고 살아야 되고, 생명대로 키워야 되고,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된다. 교회는 생명의 목장이다. 주식회사가 아니다. 교회는 생명의 목장이다. 구원이 하늘에서부터 온다. 땅에서 구원이 솟아 올라가는 법은 없다. 땅에는 구원이 없다. 씨가 와야 밭이 되는 것이지 밭이 씨가 되는 법은 없다. 우리는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땅에 심는 것이다. 하늘의 것을 가져다 땅에 심는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 땅에 없는데, 창세전에 교회는 예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이 땅에 없는 것을 땅에 심는 것이다.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 비난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하늘의 것을 땅에 심는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겠는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미친 놈 소리도 들어야 된다. 들을 수밖에 없다. 너무 말이 무거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자. 그 대신 재미있는 것이다. 아이들 키우면 재미있다. 귀찮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니까 하는 것이지 무거운 짐이면 하겠는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주 재미있다. 추수가 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한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내가 대구에 와서 처음으로 어떤 학생이 입을 열어 간증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얼마나 고무가 되었는지 모른다. 별 간증이 아니지만 말씀 듣고 화답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 자매는 지금까지 다닌다.

생명으로 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교리로 한 것은 변질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생명으로 한 것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

이 자매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에서 나올 때는 덜 깨서 나오고 자기의식이 없다. 그런데 나오면서 맨 처음 나를 부른다. 자기는 무의식중에 부른 것이다. 그때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르겠다.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미도 있다. 생명의 목장이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고 느리지만 또 보람도 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비밀이다. 외람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할 수 없이 말하는 것이다. 평생을 이런 사람들과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명의 목장! 요한복음 강해한 것을 쓰면서 <생명의 목장>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요한복음 전반부만 되어 있는 1권인데, 10장 11장까지만 되어 있는데 책이 많이 팔렸다.

우리가 지금 구속을 받아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재창조이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동산에 두었던 그 사람이 지금 없어졌다. 추방당했다. 추방당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속이다. 제2의 창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이 재창조이다. 구속 안에서 우리는 다시 지어진 것이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니고데모가 그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 아무리 물어봐도 안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교회 다니면서 삶이 달라지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다. 삶이 좀 달라진 것은 좋은 것이지만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사람이라고 했다. 진짜로 새 사람이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새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옛사람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 사람 예수 안에서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교회가 된다. 이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청함(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22:14)는 말이 그 말이다. 부름은 받아 올수 있다. 그런데 택함을 받으려면 구속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는가? 그 구속 때문에 이야기한다. 사랑 방에 오늘 내가 글을 써 놓았다.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런데 누구도 못한 일을 나에게 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못한 일을 해주었다. 나는 막판에 그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 생각이 들어다. 내 죄를 용서해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위해 죽느냐 말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위해서 죽는 희생을 했느냐는 것이다. 도저히 나는 그것이 생각이 안 된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아들을 죽게 하는가? 여러분도 생각해보라.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악질은 없다.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악질은 여기 아무도 안 왔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

그분이 죽은 것은 나의 구속을 위해 죽은 것이다. 내가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데 그 구속이 희미하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해봐도 그 구속의 한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어디 열심히 안하는가? 충성스럽게 안하는가? 다 한다. 아무리 해도 개는 개고, 소는 소다. 새사람으로 다시 살기 전에는 교회는 그 수준 이상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듯이 오늘 새로운 세계에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이다. 재창조이다.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어보라. 바울서신을 읽어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수천 번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다. 내가 있고 싶다고 있는가? 옛날에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7:24)하고 나도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나니” 하니까 얼마나 해방감이 오고 좋았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하니까

뭣도 모르고 한 소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야 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적이 없다.

이제 보니까 이 안에는 정죄함이 없구나. 일부러 정죄를 안 해주어서가 아니고, 죄를 일부러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오면 죄가 없어져 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러면 모든 죄를 졌다고 하는 모든 죄가 끝나버렸는데 무슨 죄가 또 있겠는가? 용서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 문제가 아니다. 용서해주는 것은 또 용서해주어야 되고, 또 용서해주어야 되고, 평생 그러고 산다. 용서해주었다고 평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가? 어느 곳에 와야 죄가 없다.

내가 미국에 가면 말을 못하니까 갑자기 바보가 된다. 나는 상당히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가면 갑자기 병어리가 된다. 한국 사람들이 KAL을 많이 타는 이유가 있다. 외국 비행기를 타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물 한잔 받아먹기도 어렵다. 더운 물 한잔 달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다. 나는 찬물을 못 먹으니까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 안다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warm하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Hot? 한다. 못 알아들으니 환장하겠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서 할 수 없이 손으로 Hot과 cold의 가운데라고 했다. 완전히 병신 된다. 그런데 한국 땅에 오니까 말을 너무 잘한다. 누가 나에게 말을 못한다고 하겠는가?

판이 바뀌어져야지 울고 짜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백날 울고 짜봐야 소용이 없다. 그 안에 오면, 구속 안에 오면, 저절로 무효화 된다. 거기서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말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고 말했다.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행하려면 판이 바뀌어져야 되지 다른 방법을 바뀌서는 안 된다.

이래보니까 안되더라. 저래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백날 해 봐도 안 된다. 기도해보고 안되면 다른 뭔가를 해본다. 기도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손을 들고 하라는 사람도 있고, 손을 쥐고 하라는 사람도 있고, 금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다. 성경도 별 말이 다 있다. 그때 상황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오만 말이 다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는가? 어떻게 다 하고 살겠는가? 해도 되지도 않는다.

한방에 해결된다. 예수 안에서 한방에 해결해야 한다. 유일한 약이 나왔는데, 또 다른 것을 먹고 있으면 되겠는가? 알고 보니 너무 쉬운 것이다. 너무 쉬워져 버린 것이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진짜인가? 사실로 그런가? 이름도 성도 없는李목사 저 사람 말이 맞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교황이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띄지 않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 하니까 저것이 맞는가? 다른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하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당연하다. 나 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름도 성도 없는데 내 말이 잘 먹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해야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하여간 필요할 때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할 사람이 생기면 나를 데려가도 좋습니다.’라고 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도 생각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건방지게 흥정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면 당신이 손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소리를 했다.

생명의 목장! 이것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농장이다. 씨를 뿌려서 난 것이다. 씨 뿌려서 열 개 낱지 다섯 개 낱지 모른다. 콩 심으면 콩 밭이고, 팥을 심으면 팥 밭이다. 내가 심은 대로 나온다. 교역자들이 뭐를 심어놓으면 심은 대로 나온다.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심은 대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심은 대로 나오는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이 나왔는지를 자기가 그것을 구별 못하겠는가? 씨를 심은 사람이 콩 심었는지 팥 심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곤란하다. 이런 사람은 농사지을 자격이 없다. 콩인지 팥인지는 알아야 한다.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6)라고 말한다.

생명 안에서 일하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라. 그 래야 생명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생명과 지식을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차라리 지식으로 가서 학자가 되면 된다. 우리는 학자와 다르다. 학자들은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지식은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책임도 없다.

여러분들이 구속에 대해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라. 답이 있는지 검색해보라. 나도 이번에 큰 문제가 될지 모르다가 큰 문제가 되길래 검색을

해보았다. 내가 체험하면 되는 것이니까 원래는 검색을 해보지 않고 할 필요도 없었다. 검색을 해보니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누구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유명한 분들은 더 잘 알 테니까 한번 구속론을 찾아보라. 그 사람들이 말한 구속론을 가지고 사람이 구속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